

宋純의 꿈과 <俛仰亭歌>의 흥취*

최상은**

<차 례>

1. 머리말
2. 송순의 이념적 지향과 정서
3. 꿈의 실현과 <면양정가>의 흥취
4. 마무리

<국문초록>

이 글은 송순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꿰뚫고 있는 원리를 찾아보고, 그런 맥락에서 <면양정가>의 시세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원리는 이념과 현실의 관계이다. 일단 송순의 시를 크게 응제시, 현실비판시, 교훈시, 산수시 등 네 유형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했다. 네 유형의 작품들은 상이한 성향을 지니고 있어서 표면적으로 매우 이질적으로 보이지만 동질적인 지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제시는 임금과 신하가 공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꿈의 세계와 임금에 대한 총의 이념을 형상화한 작품군이고, 현실비판시는 잘못된 현실사회를 비판하고 이상사회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둔 작품군이라는 면에서는 궁극적인 지향점이 같은 작품군이라 할 수 있다. 교훈시는 현실비판시에서 보여준 부정적 현실의 타개를 위해서는 느슨해진 관리들의 이

* 이 논문은 상명대학교 2012학년도 교내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또 이 논문은 2012년 11월 9일 한국가사문학관에서 “면양정 송순”을 주제로 개최된 ‘제13회 전국가사문학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이다. 영성한 논문에 대하여 토론을 맡아 주신 김은수(광주대)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김학성 선생님께서 문제해결을 위한 조언을 해 주셔서 논문을 가다듬을 수 있었다.

** 상명대학교

념적 긴장을 조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산수시에 형상화된 세계는 송순이 바라는 꿈의 세계라 할 수 있다. 갈등이 없이 유유자적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어쩌면 경국제민의 궁극적인 목표일 수도 있는 것이다.

네 유형의 작품에 형상화된 송순의 꿈은 <면앙정가>에 집약되어 있다. <면앙정가>는 ‘俛仰’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가의 이념과 흥취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작품이다. 부끄럼없이 유가의 이념을 실현하고 그 흥취를 즐기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지은 정자가 면앙정이고, 그 꿈의 형상화가 <면앙정가>이다. 사대부의 이상인 경국제민의 이념이 실현되어 태평성대에서 늘 ‘君恩’을 노래하면서 살 수 있는 삶, 늙어서 향촌에서 한가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대부의 궁극적인 꿈,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런 꿈을 이루었을 때의 흥취, <면앙정가>는 이러한 송순의 삶과 꿈, 그것에서 촉발되는 호연한 흥취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핵심어 : 이념, 현실, 꿈, 흥취, 이상사회, 현실사회

1. 머리말

宋純(1493~1582)은 성종 때에 태어나 젊은 시절 士禍를 온전히 경험하였고 당쟁 초기까지 생존하였다. 사화기를 흔히 歸去來의 시대라 하는데 송순은 이 시대에 출사, 큰 시련 없이 관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했다. 호남 사림으로서의 인품과 경국제민의 이념을 함양한 송순은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념실현을 위하여 치사할 때까지 초지일관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¹⁾

1) 송순의 생애에 대해서는 이종건, 『俛仰亭 宋純 研究』, 개문사, 1987 ; 송순 문학의

평탄하지 않은 시대를 살면서 마주친 정치현실의 경험과 경국제민이라는 사대부 이념의 괴리에서 오는 갈등과 고민, 그리고 삶의 지향과 꿈이 송순의 다양한 문학작품에 녹아들어 있다. 한 작가의 작품세계는 삶의 과정에 따라, 이념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다양성을 작품세계의 다채로움이나 풍성함으로만 평가하고 말 수는 없다. 다양한 작품세계 이면에는 이들 작품을 하나로 뭉 수 있는 원리가 작동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양성 속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원리를 구명해 낼 때 그 다양성의 의미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송순에 대한 연구는 매우 풍성하게 이루어졌다. 작품배경으로서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한문학·시조·가사 등 작품세계를 총체적으로 다루어 작가 송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 연구²⁾를 비롯하여 사림과 문학의 맥락에서 송순의 문학을 이해하고자 한 연구³⁾, 다른 시문들의 모티브·표현기법과 구조의 창조적 수용양상과 창작의 원리로서 기일원론에 초점을 맞추어 <면양정가>를 집중 조명한 연구⁴⁾, 누정가사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풍수의 관점에서 풀어보고자 <면양정가>를 분석한 연구⁵⁾, 현실인식과 대응방식을 통해서 송순의 문학적 지향을 논의하고 그의 국문시가의 시적 지향을 탐구한 연구⁶⁾, 기타 송순 작품의 유형연구나 개

기반으로서의 修學에 대해서는 최재남, 「송흙 귀향의 반향과 송순 문학의 기반」, 『한국문학논총』 43집, 한국문학회, 2006 ; 송순 시가의 시학적 기반이 되는 이념에 대해서는 김학성, 「송순 시가의 시학적 특성」, 『고시가연구』 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1997 참조.

2) 이종건, 앞의 책.

3) 임형택, 「16세기 광·라지역의 사림층과 송순의 시세계」, 『古典詩歌의 理念과 表象』, 임하 최진원박사 정년기념 논총간행위원회, 1991, 408~430쪽.

김학성, 「송순 시가의 시학적 특성」, 『고시가연구』 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1997, 59~78.

4) 정무룡, 「<면양정가> 연구」, 『한민족어문학』 54집, 한민족어문학회, 2009, 277~314쪽.

5) 진경환, 「누정가사의 공간과 풍경」, 『우리어문연구』 38집, 우리어문학회, 2010, 111~136쪽.

6) 하운섭, 「면양 송순의 현실대응방식과 시적 지향」,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6.

별 작품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개별 작품 연구는 <면앙정가>에 집중되어 있다. 이 글은 송순 시가의 이면을 꿰뚫고 있는 원리를 찾고 그 원리의 다양한 형상화를 구명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이상의 논의들에서 이룬 작품분석 방법과 작품형성의 원리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송순의 다양한 작품세계와 다양성 속에 관류하고 있는 일관된 원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면앙정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되 송순의 시가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형성원리인 이념과 현실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송순의 이념적 지향과 정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3장에서는 송순 문학에 있어서 <면앙정가>가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송순은 경국제민을 이념으로 하는 사대부 층이었고, ‘송순 시학의 특성을 호남 사림의 주기론적 시학에 의거한 세계 인식과 현실인식이 미적으로 형상화된 데에서 찾을 수 있는 것’⁷⁾이라면 이념과 현실의 문제는 송순 시가의 문학적 성격을 밝히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즉 사대부 시가의 정서는 이념실현의 정도에 따라 진폭이 크게 나타나는 만큼 이념과 현실의 관계는 송순 시가의 판도를 가늠하는 가장 적절한 척도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송순의 시가를 이념과 현실, 이념실현의 정도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⁸⁾

7) 이종건의 앞의 책 31~37쪽, 김학성의 위의 글 77쪽 참조.

8) 하운섭은 앞의 글에서 송순의 시가작품은 어느 하나의 모티프나 장르에 매몰되지 않고, 매우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다는 데 착안하고 그의 시가 중 <치사가>, <오륜가>, <면앙정장가>·<면앙정단가>에 주목하였다. 이들의 작품에 대하여 송순의 현실인식과 대응방식에 있어서 당시 강호시가와 차별성이나 장르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글에서는 하운섭의 논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다른 작가의 작품은 논외로 하고 송순의 작품의 다양성과 다양성에 내재하고 있는 원리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2. 송순의 이념적 지향과 정서

송순이 살았던 시대는 사회와 당쟁으로 점철되던 시기였다. 경국제민을 이념으로 삼았던 사대부층은 정치현실에 나아가 관인으로서 포부를 펼치는 것이 삶의 목표였다. 그러나 혼전을 거듭하던 이 시대에는 관인의 자리를 포기하고 귀향하는 사대부들이 많았다. ‘연산군 이후로는 歸去來가 생활동경이 되고 思潮가 되었던 것이다.’⁹⁾ 그런데 송순은 이 시대에 과거를 통해서 출사했다. 출사한 후 송순은 경향의 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한 차례의 유배를 경험했을 뿐 비교적 순탄한 관인생활을 하다가 과거 합격 50년 후인 77세 되던 해에 致仕했다. 송순이 이렇게 순탄한 관인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호남 사림의 정신적인 스승이라 할 수 있는 宋欽, 朴祥, 金麟厚와 같은 명사들의 가르침과 교우관계의 영향도 컸을 것이다.¹⁰⁾ 다음 글을 참고로 하자.

선생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학문하는 방법은 오직 공경[敬]하고 정직[直]한 두 글자에 있으니 마음 다스리기를 공경으로써 하고 일 처리하기를 정직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 공경을 주로 하여 게으름을 이기려 하나 사사로운 생각이 다시 일어나서 게으르고 혼암(昏暗)할 때가 많으며 벼슬을 당하여 일을 처리할 적에 비록 그릇됨을 고쳐 정직함을 따르고자 하나 사사로운 생각이 겹겹이 나서 그릇됨을 따를 때가 많아 ‘공경과 정직’ 두 가지를 하려 해도 되지 않습니다. …… 그래서 분발하는 마음을 내어 공경과 정직 위에 공을 들인 지 지금 두어 해가 됨에 비로소 공경과 정직의 공은 두 가지 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공경으로써 안을 정직하게 하면 일을 처리함이 또한 공경스러울 것이니 일을 처리함이 공경하면서 정직하지 않은 자가 어찌 있겠습니까?¹¹⁾

9) 최진원, 「강호가도연구」, 『국문학과 자연』, 성대 출판부, 1987, 13쪽.

10) 송순의 스승과 교우관계가 그의 삶과 문학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앞서 제시한 이종건, 최재남, 김학성의 논문을 참고할 만하다.

11) 宋純, <上訥齋朴先生書>, 『俛仰集』, 『한국고전문학전집』20,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98~99쪽. “先生嘗言 ‘爲學之方 惟在敬直二字上 治心以敬 處事以直.’ …… 雖欲主於敬而勝怠 然邪念復起 怠昏之時多 當官處事 雖欲措諸枉而從直 然私意

송순이 스승인 박상에게 공경과 정직으로써 나아가고자 다짐했지만 때때로 판단력이 흐려지고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 그릇된 행동을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했다. 그렇지만 몇 년간 힘써 노력한 결과 공경과 정직으로써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했다. 관직에 있으면서 마음이 흔들려 일을 그르칠 뻔한 적이 많았지만 결국은 정도를 걷게 되었음을 자신있게 얘기한 글이다. 이 글을 쓴 해에 송순은 ‘공경과 정직’에서 벗어나는 정치 현실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한 작품 <聞丐歌>, <聞隣家哭> 등을 내놓았다. 경국제민이라는 본연의 이념에서 이탈하려는 자신을 다잡으면서 부조리한 현실, 즉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함에도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정치현실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수기치인의 자세를 견지하는 송순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후 <俛仰亭歌 三言>를 통해서도 하늘과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며 자연에 융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함을, 거의 만년에 지은 <水月論>에서는 세상 만물의 이면에는 변하지 않는 근본이념이 내재해 있지만 상황에 따라 그 이념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송순의 이념은 주기론적 입장¹²⁾에서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송순은 당시의 현실문제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고 유학의 실천덕목을 직설적으로 제시하는 <오륜가>,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현실비판시, 자연에서의 흥취를 노래한 산수시, 왕에게 올리는 應製詩에 이르기까지 문학에 있어서도 다양한 작품세계를 보여 줄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송순이 시종일관했던 경국제민의 이념 아래 창작한 다양한 작품의 역학관계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한시 중 응제시¹³⁾와 현실비판시는 시상이 전혀 상반된 유형이다. 응제시는 왕을 위한 시이기 때문에 목적성, 즉 왕을 위한 송축의 의미가

蟲生 循枉之時多 二者無奈何 …… 以是發憤 敬直上用功 今數年于茲 而始覺敬直之功 非有兩樣事也 苟能敬以直內 則執事亦敬也 何有執事敬 而未直者乎?”

12) 송순의 이기론에 대해서는 이종건의 앞의 책, 31~45쪽의 논의, 송순의 주기론적 입장과 문학세계에 대해서는 김학성, 앞의 논문, 62~70쪽의 논의 참조.

13) 송순은 여러 차례에 걸쳐 왕 앞에서 응제시를 지어 호평을 받았다고 함. 이에 대한 논의는 이종건, 위의 책, 95~98쪽, 118쪽 참조.

강하다. 따라서 응제시는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현실 보다는 왕이 기대하는 신하의 충성심 표출과 태평성대의 구가를 제재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응제시를 짓게 하는 왕의 기대가 거기 있었을 것이고 신하는 그런 왕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현실비판시는 창작 동기면에서 응제시와는 상반된다. 현실비판시는 부정적인 현실을 들추어서 비판함으로써 백성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현실을 바로 잡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작품을 통해서 논의를 진행해 보자.

蓬萊佳景屬良辰
好雨前宵更洗春
池外風光連禁樹
樓邊花氣擁丹宸
休看物態空隨節
須識天心政施仁
佇見吾民登壽域
尋源何必問秦人¹⁴⁾

아름다운 계절 봉래산 고운데
지난 밤 단비에 깨끗해진 봄날
연못가 풍경은 대궐 숲과 어우러지고
누각가 꽃향기는 대궐을 감쌌네
철따라 바뀌는 헛된 물태 보지말라
어진 정치 베푸시는 천심을 알아야 할 뿐
우리 백성 오랜 태평 지긋이 바라보노라니
도원을 찾음에 하필 진인에게 물을 것인가

<桃源應製>이다. 궁궐의 아름다운 정경과 임금의 어진 정치를 기리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바로 무릉도원인데 어디서 다시 무릉도원을 찾겠느냐고 했다. 그 정경은 현실에서는 없을 것만 같은 이상향의 모습이지만 그것은 사대부가 꿈꾸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들의 꿈은 어부처럼 현실을 벗어난 별천지에서 도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지존인 왕과 백성들이 함께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도원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원응제>는 왕을 위하여 지었지만 송순 자신의 꿈을 형상화한 시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실재하는 삶의 현장이 꿈에서 그리는 도원이 될 수는 없다. 송순은 전 생애를 사화시대를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많은

14) 송순, <桃源應製>, 『俛仰集』 卷一, 『韓國文集叢刊』26, 민족문화추진회, 1988, 336쪽.

갈등과 시련 속에서 살았기에 <도원응제>의 도원은 먼 나라의 얘기이고 눈앞에 전개되는 현실사회는 <啄木歎>의 고목과 딱따구리와 벌레의 삶의 현장과 같았다.

喙傷爪脫羽亦殘
耐死效誠誰汝賢
古今人事盡如此
吁嗟汝身何獨然¹⁵⁾

부리 상하고 발톱 빠지고 날개가 모지라지도록
죽어라고 정성 다해도 누가 널 어질다 할까
고금의 사람 일 다 이와 같으니
아아, 어찌 너 한 몸만 그러하겠는가

칠언고시인 <탁목탄>의 결말 대목이다. <탁목탄>은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나라는 더욱 위태로워지고 자신은 지쳐서 체념해 버리는 모습을, 고목을 살리려 벌레를 잡아먹으려 하지만 벌레는 잡지 못하고, 고목에게 상처만 입히고 자신은 지쳐버리는 딱따구리에 비유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송순은 자신의 모습을, 날고 싶어도 날 수 없고 웃음거리만 되는 <病鶴>¹⁶⁾에 비유하기도 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한 정치현실의 난맥상에 대한 송순의 비판적 안목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현실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인식은 백성들의 삶에도 미쳤다. 출사한 20대 후반과 30대의 나이에 쓴 송순의 작품은 현실에 대한 날카롭고 거친 비판적 시각을 보여준다. <田家怨>¹⁷⁾, <聞丐歌>¹⁸⁾, <聞隣家哭>¹⁹⁾ 등은 당시의 혼란한 정치현실로 인해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세금수탈과 폭력관원에 시달리는 백성, 왕의 폭정으로 거지가 된 노인, 막을 수 없는 가렴주구에 시달리며 분통 터뜨리는 백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치현실에 대한 원망과 풍자의 목소리들이다. 30대의 작품 성향으로 미루어 볼 때, 창작활동이 가장 활발해야 할

15) 송순, <啄木歎>, 위의 책, 195쪽.

16) 송순, <病鶴>, 위의 책, 190쪽. “豈知塵土裏/得見九臯禽/身上無全羽/雲邊有遠心/
當行澁長步/欲喉失清吟/坐受群鷄侮/相看淚濕襟”

17) 송순, <田家怨>, 위의 책, 189쪽.

18) 송순, <聞丐歌>, 위의 책, 193쪽.

19) 송순, <聞隣家哭>, 위의 책, 194쪽.

40대의 작품이 별로 없는 것은 창작활동을 안 해서라기보다는 거칠고 격양된 비판과 풍자의 작품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정²⁰⁾이 설득력이 있다. 그럴 정도로 송순의 당시 정치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심각했던 것이다.

줄곧 관인으로서 정치현실에 진출했던 송순이 이러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창작했던 것은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을 <병학>에 비유한 것도 그런 상황 인식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송순은 그런 상황에서도 정치현실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을 <鷗鳥>²¹⁾로 표현했다. 남들은 개인의 편안하고 고고한 삶을 찾아 숨어 살지만 자기 자신은 끊임없이 장안의 궁궐을 향해 있다. 이전투구하는 관인들의 난맥상과 꺾박받는 백성의 목소리를 통해 정치현실에 문제제기를 하고 경국제민의 이념을 굳게 유지하고 있음을 솔개에 비유한 것이다. 응제시와 현실비판시는 표면적으로는 상극에 있는 작품 유형이지만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이념은 동일했던 것이다.

송순은 현실비판시로 보여준 정치현실의 문제와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해결하고 응제시에서 보여준 경국제민의 이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 <五倫歌>와 같은 교훈가를 지었던 것 같다. 현실비판시의 성향으로 미루어 볼 때, <오륜가>는 ‘백성 교화의 훈민보다는 사람 자체의 修己와 실천궁행’²²⁾에 초점을 맞추었다. 송순은 당시 현실사회의 문제가 백성들보다 관인들의 이념적 긴장이 느슨해진 데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교훈가는 아니지만, 임금과 신하가 서로 챙겨주고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모습을 그린 <自上特賜黃菊玉堂歌>²³⁾, 멀리

20) 이종건, 앞의 책, 50쪽. 필자는 30대의 작품 성향과 송순의 <自錄詩稿>의 “故中年所作 散逸者 不復收合 只錄且存若干藏”을 토대로 이렇게 추정했다.

21) 송순, <鷗鳥>, 앞의 책, 190쪽. “鶴在山中鷗在水/閑中飲啄自清高/爾何獨向長安屋/終日飛飛不厭勞”

22) 김학성, 앞의 글, 74쪽.

23) 송순, 앞의 책 卷四「雜著」, 237쪽.

떨어져 있으면서도 꿈속에서 임금을 만나 정답을 나누는 모습을 그린 <夢見主上歌>²⁴⁾는 오륜 중 ‘君臣有義’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준 작품일 것이다. <오륜가>는 당시인들의 이념적 긴장의 끈을 잡아당김으로써 얽힌 정치현실의 실타래를 풀고자 한 작품이다. 앞서 살펴 본 바, <상눌재박선생서>에서 관인으로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았지만 ‘공경과 정직’의 자세를 버리지 않으려 한 송순의 삶의 자세를 이들 작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송순의 시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山水詩이다. 20대부터 전 생애에 걸쳐서 산수시를 지었다. 경국제민을 이념으로 하는 사대부는 정치현실이 여의치 않을 때는 물러나서 自守하면서 때를 기다렸다. 이들의 물러남은 현실사회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목표는 관인으로서 兼善하는 데 있지 물러나 獨善하는 데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자연 예찬이 현실 부정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송순은 현실 현실비판시를 쓰던 시기에도 줄곧 산수시 창작을 했다. <전가원>을 썼던 해에 지은 <漁父>를 보자.

皓髮滄浪叟
斜陽三尺竿
跡與鷗鳥沒
心與雲海寬
長風萬里舟
出入輕波瀾
志願不在魚
何地非吾安²⁵⁾

물가에 사는 하얀 머리 노인
저녁노을 받으며 낚싯대 드리우니
흔적은 갈매기와 함께 사라지고
마음은 운해와 같이 여유롭다
부는 바람에 멀리멀리 떠나가는 배
가볍게 물결 속으로 드나든다
내 뜻과 소원, 고기에 있지 않으니
어디인들 내 마음 편하지 않을까

이 작품의 어부는 가혹한 수탈에 시달리는 <전가원>의 농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전가원> 농부의 늙은 부모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한뫼한 노인²⁶⁾이지만 <어부>의 노인은 어디에도 구애됨이 없는 한가로운 노인이

24) 같은 책.

25) 송순, 앞의 책 卷一, 189쪽.

26) 같은 책. “舊穀已云盡/新苗未可期/摘日西原草/不足充其飢/兒啼猶可認/親老復何爲

다. <전가원>은 잘못된 정치현실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라면 <어부>는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가 한가로운 흥취를 노래한 작품이다. <전가원>은 경국제민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와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격앙된 정서를 노래했다면, <어부>는 정치현실을 벗어난 동경의 세계를 노래했다. 복잡하고 힘드는 공무에서 벗어나 한가로운 정취에 빠져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경지가 경국제민의 궁극적 목표일 수도 있다. 경국제민이란, 순풍에 배 띄우고 흘러가는 대로 유유자적하는 어부처럼 다툼과 구애됨이 없이 조화롭고 자유로운 이상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일 것이기 때문이다. 꼭 고기를 잡아야겠다는 악착같은 마음이 없는 어부의 삶은, 권력다툼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어쩔 수 없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치단지 앞으면 안 되는 관인들에게 영원한 동경의 세계였는지 모른다. 송순은 <전가원>과 같은 작품을 통해서 현실사회의 문제를 비판하면서 경국제민의 이념을 다지고, <어부>와 같은 작품을 통해서 평화로운 이상사회를 동경했던 것이다. ‘전가’의 삶을 ‘어부’의 삶처럼 만드는 것이 송순과 같은 사대부들의 꿈이 아니었을까? 두 작품은 젊은 시절, 의욕적으로 정치현실에 나아간 송순의 현실인식과 꿈을 선명하게 보여 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송순은 다양한 유형의 작품을 남겼는데, 그 다양성은 송순이 가졌던 한결같은 꿈을 다른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응제시는 정치현실의 꿈을, 현실비판시는 그 꿈을 좌절시키는 현실사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오류가는 꿈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마음가짐을, 산수시는 백성을 포함한 인간의 보편적인 꿈을 각각 다른 목소리로 표현했다. 그렇지만 송순의 작품세계에서 중심을 이루고 송순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현실사회이다. 경국제민의 꿈을 현실사회에서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작품을 지었던 송순은 60세경 이들 작품세계를 아울러 이상적인 꿈의 세계, 즉 이상사회를 형상화한 작품 <면양정가>를

/出入柴門下/茫茫無所之/官吏獨何人/責公兼徵私。”

내놓았다.

3. 꿈의 실현과 <면앙정가>의 흥취

면앙정은 송순이 부지매입에서 건축·개축에 이르기까지 장기계획으로 완성된 정자이다. 32세 때 부지를 매입한 후 거의 10년이 다 되어 면앙정을 세웠고, 60세에 개축을 했다. 면앙정 건축이 송순에게는 일생의 숙원사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면앙정을 세운 송순의 뜻은 짧은 시 <俛仰亭歌 三言>에 잘 드러나 있다.

俛有地	굽어보면 땅이요
仰有天	우러러 보면 하늘이
亭其中	그 가운데 정자 있도다
興浩然	호연한 흥취 일어나니
招風月	풍월을 부르고
搥山川	산천을 끌어들여
扶藜杖	청려장에 의지하여
送百年 ²⁷⁾	백년을 보내리라

정자의 위치와 자연을 가까이 두고 지내는 흥취를 노래했지만, 그 의미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면앙’에는 ‘우러러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굽어보아 인간에게 부끄러움이 없다(仰不愧於天 俯不忤於人)’²⁸⁾의 관념이 내포되어 있다. 즉, 풍월과 산천을 누비고 살면서 거리낌이 없는 흥취를 노래한 시이지만, 거기에는 일생 동안 간직하며 살아가는 부끄럼 없는 떳떳한 삶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 자연을 노래한 송순의 작품이 도가적 현실도피의 신선경으로 빠져들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규범적 존재로

27) 송순, 앞의 책 卷三, 232쪽.

28) 『孟子』 「盡心」篇.

서의 하늘과 현실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살고 있는 땅 사이에 굳건히 서 있는 정자가 면양정이다. 초월의 세계를 꿈꾸며 현실세계를 떠나려 하는 듯하지만 면양정은 늘 거기에 있는 것이다. 송순이 꿈꾼 흥취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벗어나려는 듯 들떠 있지만 항상 그 자리에 터를 잡고 산천을 불러들이고 끌어들이며 함께 흥겨워하는 인간적 정취가 있다. <俛仰亭雜歌 二篇>²⁹⁾을 보자.

秋月山 가는바람 錦城山 넘어갈제
 들넘어 亭子위에 잠못이뤄 깨안즈니
 어즈버 즐거운 情이야 넷님 본듯 하야라³⁰⁾

十年을 經營하여 草廬三間 지어내니
 나흔간 들흔간에 淸風흔간 맛겨두고
 江山은 들일디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³¹⁾

<추월산 가는바람~>은 면양정 앞의 원경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고 있다가 들 넘어 불어오는 산들바람에 누가 오나 일어나 앉아 반기니 옛님을 본 듯하다고 했다. 멀리 자연에 들어 있지만 임이 있는 인간세상을 그리워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십년을 經營하여~>를 보더라도, 자연 속에 들어 공들여 정자를 앉힌 흥취를 노래하였지만 자연에 함몰되지는 않는다. 풍월을 끌어들이고 강산을 둘러봤지만 거리를 두고 있다. 근경인 초려삼간은 나와 달과 청풍이 똑 같이 한 칸씩 차지하고 있고, 원경인 강산은 멀찍이 바라보고 있다. 관조의 자세다. 이것이 바로 물아일체의 경지가 아닐까 싶다.

29) 송순, <俛仰亭雜歌 二篇>, 앞의 책 卷四, 137쪽. “秋月山兮細風/向錦城兮將去/越野兮亭子上/我無睡兮云寤起/而坐兮歡喜情/宛故人兮如觀.(第一) 經營兮十年/作草堂兮三間/明月兮淸風/咸收拾兮時完/惟江山兮無處納/散而置兮觀之.(第二)”

30) 김동욱, 「壬亂前後 歌詞研究」, 『震檀學報』 제25·26·27합병호, 468쪽. <면양정잡가> 제1수를 김동욱이 反譯한 것임.

31) 김천택, 『靑丘永言』. 이 작품이 원 노래이고 『면양집』의 <면양정잡가> 제2수가 한역일 것으로 보임.

<면양정가>는 이들 작품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스케일이 크다. 가사 장르이기 때문에 작품의 길이도 길이지만 공간 설정이 광범위하다. 광범위한 공간을 끌어들이었지만 표현은 매우 구체적이다. <면양정가 삼언>에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보여준 이념과 흥취를 구체화하고 감각화하고 행동화한 것이 <면양정가>이다. 작품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면서 시상의 변화를 짚어본다.

(가)

旡等山 혼활기 뫼히 동다히로 버더이셔
 멀리 세쳐와 霽月峯의 되여거늘
 無邊 大野의 모습 짐작호노라
 일곱구비 혼디 움쳐 문득문득 버렸듯
 가온대 구비는 굵기든 늘근농이
 선증을 낫씨야 머리를 안쳐시니
 너르바희 우희 松竹을 헤혀고
 亭子를 안쳐시니
 구름탄 청학이 千里를 가리라
 두나리 버렸듯³²⁾

(나)

玉泉山 龍泉山 느린 물히
 亭子압 너븐들히 兀兀히 퍼진드시
 넘씨든 기노라 프르거든 회지마나
 雙龍이 뒤트는듯 긴집을 치뻗는듯
 어드러로 가노라 모습일 비얏바
 닳는듯 삭로는듯 밤늦으로 흐르는듯
 무조친 沙汀은 눈긏치 퍼젓거든
 어즈러운 기력기는 무스거슬 어르노라
 안즈락 누리락 모드락 훗트락
 簾花을 사이 두고 우러곰 좃니는뇨
 너븐길 밧기요 진하늘 아리

32) 송순, <면양정가>, 임기중,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앞으로 <면양정가> 인용은 이 책에서 하므로 각주 생략함.

두르고 쏘즌거슨 모힌가 屏風인가
 그림가 아닌가
 노픈듯 느즌듯 굶듯 닳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즈러온 가운데 일흠난 양하야
 하늘도 젓치아녀 옷독이 씻는거시
 秋月山 머리짓고
 龍歸山 鳳旋山 佛臺山 魚登山
 湧珍山 錦城山이 虛空의 머러거든
 遠近 蒼崖의 머른짓도 하도할샤

면양정의 위치를 얘기하기 위하여 무등산까지 범위를 넓혔다. (가) 대목은 마치 하늘에서 담양 일대를 한눈에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이 생생하게 묘사했다. 시선이 넓은 무등산 자락에서 제월봉 일곱 구비를 거쳐 면양정으로 집중되었다. 시선이 정자로 모아지는 듯했는데, 정자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천리를 날아가기 위해 두 날개를 편 듯하다고 했다. 작품상에 하늘은 등장시키지 않았지만 정자에서 내다보이는 일망무제의 창공이 연상된다. 이것이 <면양정가 삼언>에서 이른 바, “俛有地 仰有天”이다. 송순의 시야에 잡힌 정자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동하는 대지의 움직임으로 탄생했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날아오르는 역동적인 동작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송순의 부끄럼 없는 삶의 이념에 대한 실천성과 함께 기개 넘치는 활동성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러한 역동성은 (나)에도 나타난다.

(가)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접근했다면, (나)는 다시 근경에서 원경으로 확산했다. 정자 앞 냇물을 따라서 점점 멀어지더니 “너브길 밧기요 진 하늘 아리”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산에까지 시선이 미쳤다. 이 대목 역시 정자 앞에 전개되어 있는 풍경, 즉 들을 가로질러 꾸불꾸불 흘러가는 냇물·떼 지어 날아다니는 기러기·갯가지 모양으로 우뚝 서 있는 산들을 움직임으로 묘사함으로써 역동적인 흥취를 느끼게 해 준다. 특히 추월산 등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산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였는데, 그 나열은 단

순 나열이 아니라 읽을수록 율동감을 느끼게 한다. 이는 서로 어깨를 부딪치며 치열하게 높이 경쟁을 벌이며 정자 주인에게 서로 잘 보이기 위해 아양을 떨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그림으로써 산들을 바라보며 흥겨워하고 있는 정자 주인의 모습을 연상하게 해 준다. <면양정가 삼언>의 “招風月 搥山川”의 호연한 흥취이다.

(가)(나) 대목은 풍경을 통해서 ‘俛仰’의 흥취를 노래했다. 정자 주인은 등장시키지 않고 풍경 묘사로 일관했음에도 그 역동적인 움직임의 형상화로 인하여 정자 주인의 흥취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면양정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자리잡고 천지를 조망할 수 있는 세상의 중심이다. 하늘의 뜻을 살피 땅에 부끄럼 없는 삶의 표상이 바로 면양정이다.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삶에서 진정한 ‘興浩然’이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흥호연은 ‘우러러보는 하늘과 굽어살피는 땅, 그리고 그 중간에서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인간이 어우러진 조화, 즉 천지인의 조화가 이루어진 성리학적 이상사회’³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리낌 없는 흥취이다.

(가)(나) 대목에서 면양정을 중심으로 한 공간적 시선의 이동에 따른 흥취를 발산했다면, 바로 이어지는 대목에서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흥취를 노래했다.

흰구름 브흰 煙霞 프르니는 山嵐이라 ~ 綠楊의 우는 黃鶯 嬌態 겨워 흥는괴야
나모 새 즈즈지어 樹陰이 얼린 적의 ~ 水面 涼風이야 굿칠 줄 모르는가
즌 서리 싸진 후의 산뵈치 금슈로다 ~ 漁笛도 흥을 계워 들릴 썩라 브니는다
草木 다 진 후의 江山이 미물커늘 ~ 瓊宮瑤臺와 玉海銀山이 眼底에 버리세라

사계절의 처음과 마지막 행이다. 계절별 풍경을 오버랩시키면서 시간의 변화, 즉 계절의 변화를 속도감 있게 전개하였다. 계절 풍경 대목에서는 공간적 원근에 관계없이 계절적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제재들을 선택하

33) 조태성, 「俛과 仰, 두 개의 시선」, 『고시가연구』 제29집, 한국고시가연구학회, 2012, 347~355쪽 참조.

였다. 계절마다 마지막 행은 감탄형이나 수사의문형으로 맺음으로써 바뀌는 계절과 풍경에 들뜬 흥취를 보여준다. 면양정 앞의 광활한 공간에 펼쳐진 풍경에 사계절의 풍경이 곱해져 풍경이 한층 다채롭고 풍요로워졌다. 천지운행의 자연스러움을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런 천지운행의 중심에 있는 면양정과 신선으로 자처하면서 그 운행을 관조하고 있는 정자 주인의 조화로운 모습은 물아일체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

사계절에 이은 다음 단락은 시선이 풍경에서 정자 주인에게로 이동된다.

(다)

乾坤도 가음열샤 간대마다 경이로다
 人間를 써나와도 내몸이 겨를업다
 니것도 보려호고 저것도 드르려코
 바람도 혀려호고 들도 마즈려고
 봄으란 언제줍고 고기란 언제 낙고
 柴扉란 뉘다드며 던곳츠란 뉘쓸려료
 아츰이 낫브거니 나조히라 슬흘소냐
 오늘리 不足거니 來日리라 有餘호라
 이되히 안즈보고 저되히 거러보니
 煩勞호 ㅁ음의 브틸일리 아조업다
 쉼스이 업거든 길히나 전호리야
 다만호 靑黎杖이 다 뉘되여 가노미라

(라)

술리 닉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냐
 불늑이며 특이며 혀이며 이아며
 온가짓 소리로 醉興을 비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터시라
 누으락 안즈락 구브락 저즈락
 을프락 폭람호락 노혜로 노거니
 天地도 넓고넓고 日月도 흥가호다

한겨의 풍류를 노래한 작품 중에 풍경은 물론 풍경 속을 노니는 자신을 이만큼 구체적이고 자상하게 묘사하고 생동감 있게 형상화한 작품을 찾아보기 힘들다. (다)의 첫줄에서 시·공간적으로 묘사한 천지 풍경의 풍요로움에 감격해 하면서 풍경 구경에 바쁜 자기의 일상을 감격적으로 그렸다. 피하고 싶은 인간세상의 바쁜 일상과는 달리 스스로 찾아서 바빠지는 閑客의 일상, 인간세상에서 煩勞했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바빠도 한객의 바쁜 일상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불러들이고 끌어들이는 풍월과 산천을 만끽하려 바쁘게 돌아다니니 청려장이 다 무디어질 지경이 된 것이다. 무궁무진한 풍경 앞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이 풍경들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조바심을 내는 듯한 정자 주인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져 있다. <면양정가 삼언>의 ‘招風月 搵山川 扶藜杖’의 구체화된 모습이다. 다음 대목에 이르러 이런 바쁜 일상에서 오는 흥취가 절정에 이른다.

(라)에서 보듯, 흥취의 정점은 취흥이다.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 연주하게 하고 흥취를 주체하지 못하여 갖은 동작으로 춤을 추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며 마음껏 놀면서 근심과 시름을 떨쳐버리고 천하가 태평함을 구가하고 있는 장면이다. 회갑이 된 사대부의 품격이나 권위, 성리학의 이념은 찾아볼 수 없다.

앞 대목 풍경 묘사 대목도 그랬듯이, (다)(라) 역시 은일가사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정적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다. 청려장이 무디어지도록 설새 없이 풍경을 찾아 나서는 활동성, 표현의 구체성과 사실성이 <면양정가>의 시적 특성이다. 이러한 시적 특성은 송순의 유감없는 경국제민의 이념실현과 태평성대라는 시대적 상황의 설정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작품 결말 대목을 보자.

羲皇을 모을너니 니 적이야 괴로괴야
神仙이 엇더던지 이 몸이야 괴로고야
江山風月 거늘리고 내 百年을 다 누리면

岳陽樓 상의 李太白이 사라 오다
 浩蕩情懷야 이예서 더홀소나
 이 몸이 이렇곰도 亦君恩이샷다

시대상황을 회황세계로, 본인은 신선으로 자처하면서 강산풍월의 거느리고 사는 호탕정회를 피력했다. <면양정가 삼언>의 ‘招風月 搵山川 扶藜杖 送百年’의 흥취이다. 사대부로서의 이념인 경국제민을 실현하고 면양정에 든 자신은 신선에, 시대적 배경은 회황시절에 비유하여 더할 수 없는 호탕정회를 위한 최상의 상황을 설정했다. 번잡한 정치현실이나 출사에의 미련 같은 감정의 앙금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실제의 풍경과 흥취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송순의 호탕정회는 도가적 현실도피의 흥취로 흐르지는 않았다.³⁴⁾ 마지막 행에서 그 흥취가 ‘君恩’으로 귀착되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여기서의 신선은 물론 도가적 신선이 아니라 자아와 자연, 나아가 자아와 인간이 합일된 순간에 도달할 수 있는 유가적 신선이다. 즉 신선의 경지에 도달했음에도 ‘亦君恩이샷다’라 하여 임금을 떠올리는 것은 현실 초탈의 신선이 아닌 유가적 이상으로서의 신선임을 말해준다.”³⁵⁾ <면양정가>에 나타난 송순의 이러한 모습과 정서는 “단지 자연의 품에 안겼다거나 자연에 순응하고 있다가거나 자연을 초월한 어떤 이상의 반영이라는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특정 환경에 대한 하나의 질료로서의 총체적인 느낌, 말하자면 ‘이론[이상]과 실천[현실]의 통합, 곧 프락시스(praxis)’의 표현인 것이다.”³⁶⁾ <면양정가>는 경국제민의 이념을 실현하여 이상사회를 이룬 후 고향에 세운 정자에서 풍류를 즐기는 흥취, 즉 사대부로서 모든 꿈을 이룬 이상화된

34) 하운섭도 앞의 글에서 <면양정가>의 경우, 세속에 대한 배타적인 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고, 또한 사물에 대해서도 감각적·즉물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하운섭은 동시대 다른 작가들의 강호시가와의 대비를 통해서 그런 논지를 펼쳤으나 이 글에서는 이념과 현실의 관계, 그리고 송순의 다양한 작품세계와의 관련 속에서 논의를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5) 김학성, 앞의 글, 69쪽.

36) 진경환, 앞의 논문, 122~123쪽 참조.

사대부의 삶과 흥취를 노래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면양정가>를 지은 60세 이후의 송순의 생애는 대체로 평탄했다고 보지만, 바로 직전 유배에서 풀려났고 그때까지 을사사화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보면 당시의 정치현실이나 송순의 개인상황에서 모든 갈등요소가 사라졌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면양정가>에는 그런 외적 상황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송순은 이때 담양부사 吳謙(1496~1582)의 권유로 면양정을 개축했는데 奇大升·林悌·金麟厚·朴淳·高敬命 등 여러 문인들이 시편을 지어 그를 축하해 주었고 그 외에 李滉·蘇世讓·梁山甫 등 많은 문인들과도 시편을 주고받았다. 면양정의 흥취를 노래할 분위기는 충분히 조성되어 있었다.³⁷⁾ 이런 분위기 아래에서 송순은 모든 갈등요소를 배제하고 사대부로서 이상화되고 극대화된 흥취를 <면양정가>로 발산해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평생 동안 공경과 정직의 신념을 가지고 경국제민의 이념 실현을 위하여 부끄럼 없는 노력을 다 해 온 데 대한 자부심이 이러한 흥취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즉, 경국제민의 이념을 제대로 실현함으로써 항상 군은에 젖어 살 수 있고, 향촌에서 한가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대부의 궁극적인 꿈, 그 꿈을 이룬 송순의 호연한 흥취가 바로 <면양정가>의 시세계이다.

4. 마무리

이 글은 송순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다양성 이면을 꿰뚫고 있는 원리를 찾아보고, 그런 맥락에서 <면양정가>의 시세계에 대하여 살펴보려 했다. 한 작가의 문학세계는 작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연령에 따라 변화된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 이질성과 변모는 어떤 계기로 인하여 생기는 자기극

37) 이에 대한 논의는 이종건, 앞의 책, 28·53~54쪽 참조.

복의 현상이기는 하지만 자기 본연의 연속성도 분명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에 대한 균형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송순의 시가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형성원리가 이념과 현실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논의를 진행했다.

2장에서는 우선 송순의 시를 크게 응제시, 현실비판시, 교훈시, 산수시 등 네 유형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했다. 네 유형의 작품들은 상이한 성향을 지니고 있어서 표면적으로 매우 이질적으로 보이지만 동질적인 지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제시와 현실비판시는 시의 출발이 상반된 작품군이다. 응제시는 임금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상적인 세계를 그릴 수밖에 없고, 현실비판시는 임금이 다스리는 현실의 부정적인 면을 들추어 내는 작품군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응제시는 임금과 신하가 공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꿈의 세계와 임금에 대한 충의 이념을 형상화한 작품군이고, 현실비판시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치현실을 비판함으로써 경국제민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둔 작품군이라는 면에서는 궁극적인 지향점이 같은 작품군이라 할 수 있다. 교훈시는 현실비판시에서 보여준 부정적 현실의 타개를 위해서는 느슨해진 관리들의 이념적 긴장을 조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송순의 작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산수시이다. 송순은 현실비판시를 쓰면서 한편으로는 산수시도 썼다. 그렇다고 해서 산수시를 통해서 현실사회를 부정했던 것은 아니다. 현실비판시의 비판은 부정적인 정치현실에 대한 것이지 현실사회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산수시에 형상화된 세계는 송순이 바라는 꿈의 세계라 할 수 있다. 갈등이 없이 유유자적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어찌면 경국제민의 궁극적인 목표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상 네 유형의 작품은 송순이 일관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경국제민의 이상 실현이라는 꿈을 다른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응제시는 정치현실의 꿈을, 현실비판시는 꿈을 좌절시키는 현실에 대한 안타

까움을, 교훈가는 꿈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마음가짐을, 산수시는 백성을 포함한 인간의 보편적인 꿈을 각각 다른 목소리로 보여준 것이다. 송순은 현실사회에 뿌리내리고 이상사회의 실현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다.

네 유형의 작품에 형상화된 송순의 꿈은 <면양정가>에 집약되어 있다. <면양정가>는 ‘俛仰’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가의 이념과 흥취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작품이다. <면양정가 삼언>에 잘 표현되어 있듯이 부끄럼없이 유가의 이념을 실현하고 그 흥취를 즐기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지은 정자가 면양정이고, 그 꿈의 형상화가 <면양정가>이다.

<면양정가>는 공간적 시선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시간적 변화의 속도감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시상전개를 하면서 흥취를 극대화했다. 일반적으로 귀거래를 노래하던 사화시절에 출사한 송순은 그런 귀거래 작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밝고 활발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흥취를 만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유가 사대부로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고 그 결과 향촌에서 한가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부심과 여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대부의 이상인 경국제민의 이념이 실현된 이상사회에서 늘 ‘君恩’을 노래하면서 살 수 있는 삶, 늙어서 향촌에서 한가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대부의 궁극적인 꿈,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런 꿈을 이루었을 때의 흥취, <면양정가>는 이러한 송순의 삶과 꿈, 그것에서 촉발되는 호연한 흥취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참고문헌

- 宋純, 『俛仰集』, 『韓國文集叢刊』26, 민족문화추진회, 1988.
- 宋純, 『면양집』, 『한국고전문학전집』20,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 임기중,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 권정은, 「누정가사의 공간인식과 미적 체험」, 『한국시가연구』 13집, 한국시가학회, 2003, 205~230쪽.
- 김광조, 「강호가사의 작중공간 설정과 의미」, 『한국시가연구』 23집, 한국시가학회, 2007, 115~147쪽.
- 김동욱, 「壬亂前後 歌詞研究」, 『震檀學報』 제25·26·27합병호, 468쪽.
- 김학성, 「송순 시가의 시학적 특성」, 『고시가연구』 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1997, 59~78쪽.
- 박연호, 「원림문학의 공간의 위상과 문화 교육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17집, 한국시가학회, 2005, 79~108쪽.
- 박연호, 「문화코드 읽기와 문학교육」, 『문학교육학』 22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 67~87쪽.
- 성기옥, 「고산 시가에 나타난 자연인식의 기본 틀」, 『고산연구』 1집, 고산연구회, 1987, 205~248쪽.
- 이종건, 『俛仰亭 宋純 研究』, 개문사, 1987.
- 임형택, 「16세기 광·라지역의 사립층과 송순의 시세계」, 『古典詩歌의 理念과 表象』, 임하 최진원박사 정년기념논문총간행위원회, 1991, 408~430쪽.
- 정무룡, 「<면양정가> 연구」, 『한민족어문학』 54집, 한민족어문학회, 2009, 277~314쪽.
- 조태성, 「면과 양, 두 개의 시선」, 『고시가연구』 29집, 한국고시가연구학회, 2012, 347~357쪽.

- 진경환, 「누정가사의 공간과 풍경」, 『우리어문연구』 38집, 우리어문학회, 2010, 111~138쪽.
- 최재남, 「송흙 귀향의 반향과 송순 문학의 기반」, 『한국문학논총』 43집, 한국문학회, 2006, 5~35쪽.
- 최재남, 「16~17세기 향촌사림의 시가문학」, 『한국시가연구』 9집, 한국시가학회, 2001, 79~100쪽.
- 최진원, 「강호가도연구」, 『국문학과 자연』, 성대 출판부, 1987, 13쪽.
- 하운섭, 「면앙 송순의 현실대응방식과 시적 지향」,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6.

투고일 : 2013년 1월 1일, 심사 : 2013년 1월 16일~2월 13일, 게재확정 : 2월 13일

<Abstract>

The dream of Song-Sun and the delight of <Myeonangjeongga>

Choi, Sang-eun

This article tried to look for the principle that penetrate the various works of Song-Sun(宋純), and to look at <Myeonangjeongga(俛仰亭歌)> in that context. That principle is the relationship between ideology and reality. His poems can be classified in four types of the poem for the king(應製詩), the reality-critical poem(現實批判詩), the didactic poem(教訓詩, the nature poem(山水詩). Because four types of work have different inclinations on the surface, they seems to be very disparate. However, they were confirmed to have a homogenous directivity inwardly. The poem for the king is a group of works that symbolizes the world of dreams of the king and servants, and the reality-critical poem is a group of works which aims to realize the ideal society by the criticism of the wrong real society. The didactic poem is a group of works that urge the ideological tensions of the government official to overcome the negative reality. The nature poem is a group of works which shapes the life of living harmoniously without conflict. Song-Sun' dream that is shaped in four types of the poem, is converged in <Myeonangjeongga>. <Myeonangjeongga> is a work that sings Song-Sun' delight which is achieved all the dreams and ideals.

Key words : ideal, reality, dream, delight, ideal society, real society

